

## FeNiMo 합금의 열처리 효과에 의한 자성 특성의 변화

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용 대 영, 신 경 호  
(주) 케이 맥 장 효 선, 유 흥 열

## Variation of Magnetic Properties on FeNiMo Alloy by Annealing Effect

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Dae-Young Yong, Kyoung-Ho Shin  
K-MAG Inc. H. S. Jang, H. Y. Yoo

### 1. 서론

0.1 Oe 이하의 보자력(coercivity,  $H_c$ )을 가지고 있는 연자성 센서와 두께  $50 \mu\text{m}$ , 보자력  $80 \sim 100 \text{ Oe}$ , 잔류자기(remanence,  $B_r$ )  $7 \text{ kG}$  이상을 나타내는 반경자성 합금 slug가 한 조를 이루어 도난 방지 시스템용 tag을 만들 수 있다. 보통의 tag은 non-deactivation tag과 deactivation tag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가 더 많이 상용화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FeNiMo계 합금을 이용 melting, forging 및 rolling 등의 공정을 수행하여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반경자성 slug을 박판으로 제조하였고 VSM(Vibrating Sample Magnetometer)으로 열처리(annealing) 전과 후의 자기적 특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.

### 2. 실험 방법

소량을 용해할 수 있는 Arc 용해로로 적절한 자성을 보이는 조성을 선택하였고, 다량을 녹일 수 있는 전공 유도 용해로를 이용해  $\text{Fe}_{77.1}\text{Ni}_{19}\text{Mo}_{3.9}$  합금을 balance로 각 조성에 맞게 평량하여 용해하였다. 균질화 열처리 온도(homogenizing temperature,  $T_h$ )를  $1200^\circ\text{C}$ 로 하여 두 시간 가열한 후 열연을 하였으며 뒤이어 scalping, 산세(peckling), 냉연 공정 및 소둔 온도(soft annealing temperature,  $T_s$ )를  $950^\circ\text{C}$ 와  $1050^\circ\text{C}$  각각에 대해 수행하여 두께 약  $50 \mu\text{m}$ 의 샘플을 얻었다. 박판 샘플의 크기를  $10 \times 10 \text{ mm}$ 로 잘라 열처리 전 as-rolled 시에 VSM으로 각 샘플의 자성을 측정하였다. 또한 열처리 후의 특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annealing 시  $500 \sim 700^\circ\text{C}$  온도 범위에서  $10^{-5} \text{ torr}$  이상의 진공도와 분당  $4.2 \sim 5.8^\circ\text{C}$ 로 온도를 상승시켰고,  $10.7 \sim 23.3^\circ\text{C}$ 의 냉각율 및 1 시간의 열처리 조건으로 실험을 하여 각 조건 변화에 대한 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.

### 3. 실험 결과 및 고찰

as-rolled 시와 열처리 후의  $H_c$ 의 변화를 Fig. 1에 나타내었다.  $T_a = 600^\circ\text{C}$ 에서 각 샘플의  $H_c$ 가 최대가 됨을 보이고 있는데,  $T_s = 950^\circ\text{C}$ 에서는  $85 \text{ Oe}$ 를  $T_s = 1050^\circ\text{C}$ 의 경우  $75 \text{ Oe}$ 를 각각 나타내었다. 이 온도 영역에서 목표 보자력을 보이고 있으며 최적의 입자 크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.  $T_s = 1050^\circ\text{C}$ 의 as-rolled 시에서  $H_c$ 와  $T_a = 500^\circ\text{C}$ 에서의  $H_c$ 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. Fig. 2는  $M_r$ 과  $T_a$ 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열처리 전  $M_r$ 의 값은  $T_s =$

950°C가  $T_s = 1050^\circ\text{C}$ 보다 약 100 emu/cc가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.  $M_r$ 의 값은  $T_a = 500^\circ\text{C}$ 에서 가장 크고 이후 온도를 증가시킬 때 작아짐을 알 수 있으며  $T_a = 475 \sim 560^\circ\text{C}$ 의 온도 영역에서  $T_s = 1050^\circ\text{C}$ 가  $T_s = 950^\circ\text{C}$ 에 비해 더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. 그것은 압연으로 인해 변형된 미세 구조가 열처리를 함께 따라 응력의 풀림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.  $M_s$  대  $T_a$ 에 있어서는  $T_a = 600^\circ\text{C}$ 에서 최소를  $T_a = 700^\circ\text{C}$ 에서 최대의  $M_s$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 $T_a = 600^\circ\text{C}$ 일 때의 포화자화는 앞서 Fig. 1의 보자력과 대비하여 자기모멘트의 ordering과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며 그 외의 온도 구간에서의  $M_s$ 의 변화는 압연시의 roller의 회전 속도, 압연 하중, 두께 감소율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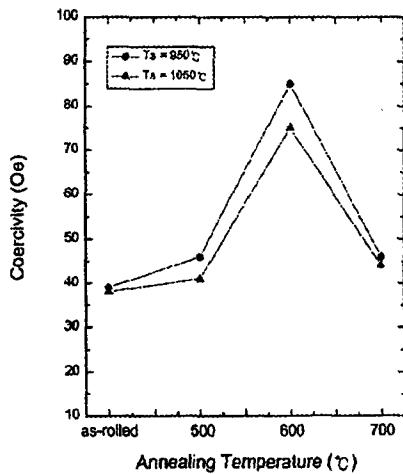


Fig. 1. Plots of coercivity as a function of annealing temperature for FeNiMo samples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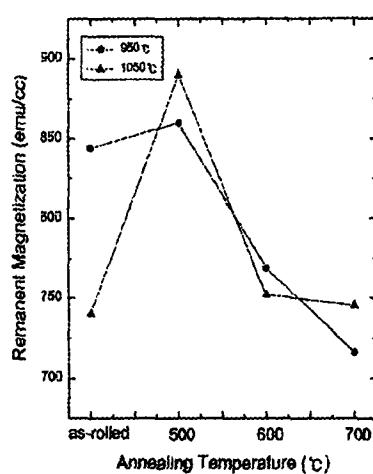


Fig. 2. Plots of remanent magnetization as a function of annealing temperature for FeNiMo samples.

#### 4. 결론

도난 방지 시스템용 tag, hysteresis coupling 및 hysteresis motor로 사용될 수 있는  $\text{Fe}_{77.1}\text{Ni}_{19}\text{Mo}_{3.9}$ 의 조성을 가진 두께  $50 \mu\text{m}$  합금 slug의 목표 보자력과 잔류자기를 나타내는 조건은  $T_s = 950^\circ\text{C}$ 에서는  $T_a = 600^\circ\text{C}$ 에서 보이고 있으며, 그 때의 잔류자기는 7 kG 보다 더 큰  $8.9 \sim 9.7 \text{ kG}$ 의 우수한 값을 나타내었다.  $T_s = 1050^\circ\text{C}$ 에서는  $T_a = 600^\circ\text{C}$ 에서 최적 보자력에 접근하고 있으며, 잔류자기의 값은  $T_s = 950^\circ\text{C}$  보다 더 큰 값을 보였다.

#### References

- [1]. J. Hollingun, "Advanced Sensor-Where the Money is" Sensor Review, **11**(2), 21 (1991).
- [2]. L. Koszegi and H. Kronmüller, Appl. Phys. A **34**, 95 (1984).
- [3]. K. H. Shin, Y. Peter Zhou and C. D. Graham, Jr., IEEE Trans. Magn., **MAG-28**, 2772 (1992).